

투데이

경찰청 승진 인사 노골적 호남 무시

경무관급 승진 내정자 12명중 고작 2명 박지원 "영남은 5명, 유례없는 편중 인사"

13일 경찰청이 단행한 경무관급 승진인사에서 승진 내정자 12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단 2명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막바지까지 경찰은 물론 정부 각 부처 인사에서 호남 출신이 배제되면서 향후 상당한 불이익도 우려되고 있다.

경찰청은 13일 "허경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장(전남) 등 총정 12명이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본청에서는 박재진 여성청소년과장(충남), 이재열 강력범죄수사과장(충북), 박진우 경호과장(제주), 강인철 장비과장(전북), 채신단 입호선 팀장(충북), 김원준 외사수사과장(경남)이 경무관으로 승진하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허 과장과 함께 박화진 경무과장(대구), 이상철 경비1과장(경남)의 경무관 승진이 내정됐다.

지방경찰청에서는 서울속 대구청 경무과장(대구), 김일근 경남청 수사과장(경남), 강성재 경기 화성동부서장(충북)이 경무관이 된다.

경무관 승진자를 입직 경로별로 보면 경찰대와 간부후보생이 5명씩, 고시특채와 순경공채가 1명씩이다. 여성 1명을 포함해 지방 총경을 3명 발탁했지만 여기에도 호남 출신은 없었다.

이번 경무관급 승진 내정자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대구 2명, 경남 3명 등 영남이 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충북 3명, 충남 1명 등 충청이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호남으로 2명, 제주가 1명 등이다.

경찰청은 "업무성과를 우선으로 하되 조직 화합과 균형 유지 차원에서 출신 지역과 입직 경로를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인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적어도 검찰과 경찰 인사에서는 지금까지 호남과 영남, 그 외 지역을 각각 3대3 대4의 비중이 관행적으로 지켜졌다"며 "본청 간부 중에서도 호남 출신이 1명도 없는 등 노골적인 영남 편중인사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3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5층 연회장에서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광주시, 전남도간 문화교류 협정식과 함께 흑룡강신문사와 광주일보간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승욱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흥진태 광주시 투자진흥국장, 웨이쑹시엔 헤이룽장성 인민정부 신문판공실 부주임,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한광천 흑룡강신문사 사장, 자오다신 헤이룽장성 당위원회 선전부 부부장, 텡안천 주 광주 중국총영사, 장소우안 헤이룽장성 당위원회 선전부 기획발전판공실 주임 등이 협정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보사-中 흑룡강신문사 협력 MOU 체결

광주·전남-헤이룽장성 문화교류 촉진

광주일보사는 13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의 대표적 대중매체 흑룡강신문과 '사업 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광주일보사와 흑룡강신문사는 이날 광주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헤이룽장성내 각급 기관과 단체, 학교 등의 광주·전남 방문을 적극 추진·후원하고, 광주·전남지역 각급 학교 및 기관, 단체 등이 헤이룽장성을 방문할 때도 상호 협력·후원하기로 했다. 양 신문사는 또 헤이룽장성 및 호남지역 기업들이 한국 또는 중국 진출을 추진할 때에도 수출입 및 판로 확대를 돕기로 약속했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광주·전남과 헤이룽장성이 이번 협력을 계기로 문화 예술의 교류를 늘려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광천 흑룡강 신문사 사장 겸 총편집인은 "광주일보와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쌍방간 상호 발전을 위한 사업교류 협력사업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도 이날 헤이룽장성과 각급 실무차원의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문화 산업과 문화예술·관광·언론·미디어 분야 등에서 교류 전개 및 상호 우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또 상호 도시간 실무차원의 우호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산업·관광 등에 걸쳐 협력을 추진하고, 소속 직원과 유관부서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업무 및 공동 관심사항에 관한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진표기자lucky@

“어등산 관광단지, 특정기업 골프장 전략”

승경중 시의원 “광주시 무책임 행정...책임자 문책해야”

광주시의회 승경중 의원(민주·광산 3)은 13일 “시민휴식공간이자 종합레저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어등산 관광단지 특정기업의 골프장 조성으로 전략하고 말했다”며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승 의원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제213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이 주민을 편하게 하지는 못할 망정 주민들에게 피해를 들게 해서야 되겠느냐”며 “조속히 광산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승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조성공사 진행 이유에 대해 '광주시 고위직자의 골프장 허가에 대한 약속이 있어서 골프장 조성 공사를 재개했다'는 진술을 올해 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에서 산권위원 전원이 들었다”며 “광주시는 법안 조정을 통해 명분을 축적한 후 '논가리고 아웅사'로 이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승 의원은 “만약 광주시가 골프장 우선 허가 방침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민간사업체가 어등산에 전문화된 돈을 쏟아 붓지 않았을 것”이라며 “광주시의 골프장 우선 허가방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본격 개했다”는 진술을 올해 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에서 산권위원 전원이 들었다”며 “광주시는 법안 조정을 통해 명분을 축적한 후 '논가리고 아웅사'로 이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승 의원은 “만약 광주시가 골프장 우선 허가 방침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민간사업체가 어등산에 전문화된 돈을 쏟아 붓지 않았을 것”이라며 “광주시의 골프장 우선 허가방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본격 개했다”는 진술을 올해 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에서 산권위원 전원이 들었다”며 “광주시는 법안 조정을 통해 명분을 축적한 후 '논가리고 아웅사'로 이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승 의원은 “만약 광주시가 골프장 우선 허가 방침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민간사업체가 어등산에 전문화된 돈을 쏟아 붓지 않았을 것”이라며 “광주시의 골프장 우선 허가방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본격 개했다”는 진술을 올해 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에서 산권위원 전원이 들었다”며 “광주시는 법안 조정을 통해 명분을 축적한 후 '논가리고 아웅사'로 이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승 의원은 “만약 광주시가 골프장 우선 허가 방침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민간사업체가 어등산에 전문화된 돈을 쏟아 붓지 않았을 것”이라며 “광주시의 골프장 우선 허가방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본격 개했다”는 진술을 올해 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에서 산권위원 전원이 들었다”며 “광주시는 법안 조정을 통해 명분을 축적한 후 '논가리고 아웅사'로 이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승 의원은 “만약 광주시가 골프장 우선 허가 방침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민간사업체가 어등산에 전문화된 돈을 쏟아 붓지 않았을 것”이라며 “광주시의 골프장 우선 허가방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본격 개했다”는 진술을 올해 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에서 산권위원 전원이 들었다”며 “광주시는 법안 조정을 통해 명분을 축적한 후 '논가리고 아웅사'로 이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2순환로 이용자 80% “전자징수 원한다”

광주 제2순환도로 이용자 10명 중 8명이 전자징수시스템 설치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선기(민주·북구 1) 광주시의회 이 지난주 광주 제2순환도로 소대 요금소와 두암 진출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0% 이상이 전자징수시스템 설치에 동의했다.

또한, 유료도로 이용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요금소 주변 정체'를 꼽았고, '적은

진출입료로 인한 불편'이 25%, '비싼 이용요금'을 지적한 응답자도 20% 나 됐다.

전자징수시스템이 설치되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90%를 차지했다. 선 의원은 “순환도로를 유료로 이용하는 데 서비스는 뒷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며 “전자징수시스템을 설치하면 요금소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며 순환도로 전자징수시스템 즉각 실시를 주장했다. 최관일기자 cki@

2015 광주 하계U대회 조직위 재정비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조직위원회가 후반기 임원진을 선임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2일 광주지대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위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010년 2월 선임된 임원들의 임기만료에 따라 재선임과 신규 위촉 절차를 거쳤다. 강운태·정의화 현 임원장은 3년 임기의

새 위원장으로 재선임됐으며 상근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김윤석 현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연임하기로 의결했다.

신규 임원으로는 중앙부처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추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지역인사로 김양근 전 헌법재판관을 대표 고문으로, 전남대학교 강정재 전 총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적자 우려 신청업체 없어

전남도의 시내 면세점 유치에 빨간 불이 켜졌다.

3만여 명을 환급받는 사후 면세점 신청이 크지만 자본금(10억원 이상)과 매장(330㎡),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하는 시내 면세점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13일 “최근 22개 시·군과 대형마트,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사후 면세점 신청을 받은 결과 목표 등 도시 대형마트 20여 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청이 다음달 4일까지 직접 접수중인 시내 면세점 신청에는 아직까지 신청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면세점은 기존 특산물 판매코너 등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지만 시내 면세점은 적자 등이 우려돼 신뜻 나서려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전남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참여가 제한되고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주요 이유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면 '광주시 투자유치'서 계속

실제 투자 금액 비율을 국내외로 분류하면 국내는 17.7%, 국외는 4.9%에 불과했다. 또한, 양해각서 체결로 인한 고용 효과는 1만8616명(국내 1만 5942명·국외 2674명)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고용된 인원은 2686명(국내 2433명·국외 253명)으로 고용률은 14.4%(국내 15.3%·국외 9.5%)에 그쳤다.

301개 업체 중 나머지 44개 업체는 계획변경과 재계약화 등의 이유로 투자를 보류했으며, 취소된 투자유치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투자를 준비중인 143개 업체 중 국내 25개사와 외국 7개사 등 32개사는 투자시기가 미정으로, 투자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철·한·독·일·인·의·장·인·정·신

은명철학

人間的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천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접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끼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인생과 빈민들은 정녕 노력을 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를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당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워져 있는지 참고검점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은명철학

人間的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천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접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끼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인생과 빈민들은 정녕 노력을 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를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당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워져 있는지 참고검점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재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재미두수)로 수십년을 요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쾌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철학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대 상류 소재된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공룡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2013학년도 전기 광주여자대학교대학원 석·박사학위 신입생 모집(남·여)

http://graduate.kwu.ac.kr

모집인원 및 모집학과
■ 석사·박사학위과정 모집정원내 100명, 정원외 0명

구분	과정	학 과 (전공)
일반 대학원	석사	미용과학과, 유아교육학과
	석사	미용과학과, 어린이영양교육학과, 상담심리학과, 직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무용학과, 식품영양학과
교육 대학원	석사	유아교육전공
	석사	미용교육전공(중등학교 2급교사(미용) 자격증 부여) 상담심리전공(전문상담교사1급 과정 공동운영) 특수교육전공(특수학교 2급교사 부여)
사회개발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 경찰법학과, 한국어문학과, 유아교육학과, 대체의학과, 언어치료학과, 간호학과, 예술치료학과, 실버복지경영학과

- 관련업체 종사자 장학금, 전일제(미취업)장학금
- 현직교원 장학금, 입학자 전원 특별장학금 지급

● 원서접수 | 2012. 10. 29 [월] ~ 11. 22 [목]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제출서류 등 문의 | (062) 950-3801~2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모집과정, 모집학과, 지원자격, 전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uate.kwu.ac.kr)의 '입학안내' 참조